

# ‘할러윈 불야성’ 광주 변화가 ‘코로나 불감증’

### 구시청·상무지구 등 북새통 클럽 입구 20~30m 대기행렬 마스크 안쓰고 거리두기 실종 방역 지침 무시...불안감 확산



지난 31일 밤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에는 할러윈 데이를 즐기러 온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할러윈 데이’(10월 31일) 맞아 광주시 구시청과 서구 상무지구는 할러윈 분장을 하고 쏟아져 나온 20~30대 젊은이들로 새벽 내내 북적거렸다.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마스크를 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난 31일 밤 광주 구시청 일대는 할러윈 데이를 맞아 젊은이들로 시끌벅적했다. 공포스런 분장 뿐 아니라 영화 ‘해리포터’ 복도리와 외투 등을 입고 거리로 나서 축제를 즐기는가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엘사’, 드래곤볼 ‘손오공’ 등 의상을 차려입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분장을 한 젊은이들 대부분은 분장 탓인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다. 감염 위험을 지적한 방역 당국의 경고가 무색했다. 이날 만화 캐릭터 마스크를 쓰고 구시청을 찾은 김모(23)씨는 “코로나때문에 그동안 거의 간혀있었다시피 했다”면서 “사회적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코로나가 잡혀가는 분위기라 모처럼 친구들과 나왔는데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고 말했다. 시내 유명 호프집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도 할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손님으로 북적었다. 대부분의 술집들이 가득 찼고 일부 헌팅포차 앞에는 입장하기 위해 다닥다닥 붙어 수십미터의 줄을 길게 늘

어서는 모습도 보였다. 유명 헌팅포차 앞에서 줄을 선 20대 여성은 “40분째 줄을 서고 있는 중”이라며 “오랜만에 친구들과 같이 나와 즐겁다”고 말했다. 술집들도 할러윈을 표현하는 각종 홍보방안으로 손님들을 끌기 바빴다. 테이블마다 호박 모형의 전등을 설치하고 술집 벽면에 귀신 등을 벽화로 그려놓는가 하면, 할러윈에 맞춰 저승사자, 사도, 만화 캐릭터 등의 각종 분

장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종업원들도 시선을 끌었다. 유흥가가 몰려있는 서구 상무지구도 할러윈을 맞아 20대 젊은층들이 몰렸다. 상무지구 내 클럽 입구에는 입장 대기 행렬이 20~30m 늘어섰고,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내부도 손님으로 가득차면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구시청과 상무지구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입장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 감성주점, 클럽 등 업소에 들어서면서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는 1일 할러윈을 맞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흥주점과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299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지만 방역 지침을 어겼으며 적발한 업소는 없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무면허 사망사고 낸 미성년 운전자 실형 장기 2년6개월·단기 1년6개월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를 낸 미성년자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2년6개월,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형생활 태도 등을 감안해 짧게는 징역 1년6개월, 최장 2년6개월을 살게하는 것으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4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석 핸들을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A군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차량 뒷자리에 탔던 다른 동승자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군은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높은 시속 103km로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A군 차량 동승자측이 해당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교육청, 학생 10번째 확진에 긴급방역 추진

### 함평초교 484명 검사

전남교육청이 지역 학생 10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남 학생 10번째 확진자 발생 직후 현장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파견,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검사를 벌였다. 또 해당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추가 감염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함평초교 학생과 교직원 등 484명 전원

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함평읍 내 학원 등 전남 학생 1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함평지역 10개 학교 81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 학생이 소속된 함평초교 1학년 학급을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학년 학급과 학년들도 2일부터 1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 외 함평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28개 학교에 대해서는 2일 하루 동안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교장회의 및 지역 방역당국과

의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 일정 등을 감안해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하되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함평지역 전체 학교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학원 16개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휴원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특히 확진자 및 의심자 발생 지역 주변의 PC방과 코인노래방,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과 생활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흥기 위협·폭행 ‘갑질’ 강진군체육회장 구속

공무원을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진경찰은 지난 31일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강진군 체육회 사

무실에서 강진군청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고 흥기로 위협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반성문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체육 행사를 마치고 군수와 만난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

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사건 이후 성명을 내고 “박회장의 행위는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한체육회는 합당한 조치를 하고 사법당국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강진체육회장직을 사퇴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사고와 함께 사·군 체육회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장 재연서 들통난 ‘몸쓸 발’

### 열차 창문과 좌석 사이 발 넣을 수 없다 했던 성추행범 벌금형

SRT열차 창문과 좌석 사이로 성인 발이 통과해 앞자리에 앉은 승객 몸에 닿을까. 열차 앞 좌석과 창문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어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1심)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해당 남성은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발을 넣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현장 재연을 거쳐 열차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광주송정역에 도착 중인 수서발 목포행 SRT열차에서 원발을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밀어 넣어 앞 좌석 여성 승객의 몸을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선,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자신의 발이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수사기관은 그러나 현장 재연을 거쳐 ‘몸쓸’ 발이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승정역에 도착할 때쯤 좌석을 벗어나 객실 밖에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옆 자리에 함께 탄 동료 직원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동료 직원의 진술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이 수사 단계에서는 ‘A씨와 자신이 자리를 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